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 '가을밤의 재즈선율'

가을밤 수놓은 환상의 무대...낭만 만끽

재즈 밴드그룹 '리디안팩토리'

솔로 독주·합주 공연 등 다채

원우들 박수·환호...깊은 여운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3강좌가 지난 14일 오후 광주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열렸다.

'가을밤의 재즈선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는 평일 저녁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로 꾸러졌다.

무대에 오른 혼성 재즈 밴드그룹 '리디안팩토리'가 처음 선보인 공연은 '내사랑 내곁에'였다. 익숙한 대중가요에서 느껴지는 재즈의 특별한 은 원우들의 눈과 귀를 한순간에 사로잡았고 이내 몰입하게 했다.

섬세한 바이올린 하나로 구성된 음을 위에 피아노와 드럼의 리듬이 더해지면서 곡이 절정에 오르자 원우들은 탄성을 내뿜었다.

연주 후 김은영 보컬은 "나이가 들면 꿈을 꾸지 않을 것 같았다"고 담담하게 얘기한 뒤 'Vola re'(볼라레)를 불렀다. 폭발적인 성량으로 존재감을 뽐낸 그는 이 곡에 대해 "꿈속에서 온몸을 파랗게 칠한 채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날아간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던 원우들은 곡이 경쾌하고 활기찬 후렴으로 접어들자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음으로 'Hey Bartender' 공연이 이어지자 장내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다.

원우들은 어깨를 들썩거리거나 박수를 치는 등 온몸으로 흥을 표현하며 노래 속 주인공이



지난 14일 오후 광주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혼성 재즈 밴드그룹 '리디안팩토리'가 다양한 공연으로 가을밤의 정취와 낭만을 선사했다.

/박상진 기자

된 것처럼 즐거워했다. 특히 곡 후반부에 등장한 베이스와 드럼 연주는 솔로였음에도 웅장한 무게감을 선보여 원우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다음 곡을 시작하기 전 김은영 보컬은 재즈의 재미를 원우들이 느끼게끔 유도했다. 그는 재즈 특유의 장법인 '스캇'을 소개하며 악기처럼 목소리를 통해서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처음에는 다소 쑥스러웠는지 작은 목소리로 따라하던 한 원우는 반복 연습을 통해 금세 스캇의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소리를 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교감의 시간 후 이어진 바이올린 연주 '백만송이 장미'는 무대와 객석

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공연 중 자리를 옮긴 배하림 연주자는 원우들 사이를 거닐면서 막힘 없이 활을 뽐내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다음 곡은 악마의 악기라고 불리는 반도네온의 매혹적인 음색으로 장식됐다. 광주 출신의 김태은 연주자는 'Libertango'와 'Cabeza'를 연이어 선사하며 원우들이 탱고의 리듬감과 재즈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막바지 무대에서는 리디안팩토리가 완전체로 연주해 독주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공연에서 원우들은 멜로디를 온전히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마지막 곡인 라틴 재즈 '베사메우초' 공연 후 빗발친(?) 앵콜 요청에 리디안팩토리는 '천개의 바람'과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을 부르며 원우들과 함께 특별한 가을밤을 보냈다.

한편 리디안팩토리는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을 주축으로 섬세하고 뛰어난 테크닉을 갖춘 실력과 뮤지션들로 구성된 혼성 밴드그룹이다.

이들은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색다르게 해석해서 관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무대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서형우·윤찬웅·수습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조선대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개소

조선대학교는 "최근 대학 본관 7층에서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춘성 총장, 김명규 국립문화재단 사장, 교내의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소 출범을 축하했다.

연구소는 2025년부터 6년간 추진되는 인문한국30(HK30) 사업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언어 발달과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AI와 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인간의 언어와 사고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인문학 연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연숙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소장은 "AI와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영유아의 언어 습득, 노년층의 인지 건강,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발달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재난 행동요령 홍보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수 서시장 일대에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은 여수발전본부와 협력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시장 일대를 돌며 리플

렛과 팻말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시민과 상인들에게 소독티슈·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나눠주며 관심을 높였다. 특히 화재 시 119 신고 절차와 신속 대피 방법 등 실생활 중심의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전남교육청-상해한국상회 '청소년 교류' 협약

전남교육청이 상해한국상회와 '청소년 스포츠·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남 학생들과 상해 지역 한국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고 문화·역사 체험을 통해 세계시민 의식과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 참

가 협력 ▲현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운영 ▲교육·체육 분야 행사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통해 지구적 시야를 지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부 장관 표창'

광주시는 15일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올해 4·7월 실시한 '2025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광주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과 2023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범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데 이어 올해 본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두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광주시민의 든든한 정신건강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전남도는 15일 도청 왕인실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강원원 경제부지사 및 실·국·원·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처, 4대 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자의 현명한 대처와 노력, 책임을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살레시오고, 재활기관 성금 지원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는 15일 "씨튼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성금 37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살레시오고가 1989년부터 '한가위 사랑 나눔 이벤트'로 이어온 학교 공동체의 전통 행사다.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 모금과 기부활동을 통해 30년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성금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땀스킴(땀튀기+아이스크림), 슬러시 등 교내 간식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모금 활동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박지영 살레시오고 교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학생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호남대 학생들, 지역 축제서 실무경험 '착착'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15일 "광주시 '2025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 과제'가 지역 축제 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책임을 맡은 이번 사업은 광주 서구와 협력한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신(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36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청년 축제기획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서창역새축제', '버스킹 월드컵', '남도 찾아가는 가을여행' 등 지역 축제 운영에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고 있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세계양궁연맹 총회', '광산뮤지엄페스티벌' 등에도 운영 인력으로 참여했다.

/박현진 기자

동문·동창회

●광주대동고총동창회(회장 양승환) 제23회 한마당축제=26일(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매월동 모교 운동장.

결혼

▲김병인·이윤경씨 차남 성록군, 김양민·김용애씨 장녀 수아양=18일(토) 오후 2시30분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